

“남느냐, 떠나느냐...” 용병호랑이 ‘빛과 그림자’

KIA, 네일, 울러, 위즈덤 ‘외국인 3인방’ 2025 시즌 조망

네일, 리그 외국인 선발 5위권...실력으로 증명한 ‘에이스’ 클래스
울러, 팀내 유일한 10승 투수 ‘가성비 최고’...이닝 이터 능력 변수
위즈덤, 홈런 33개에도 결정력·득점 생산력 아쉬워 ‘극과극’ 평가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외국인 3인방이 극명히 엇갈린 시즌을 달렸다. 네일과 울러는 리그 정상급 원투펀치로 마운드를 지탱하며 내년 동행 가능성을 열었다. 반면 위즈덤은 홈런 리그 3위에 올랐지만 부상과 결정력 부족으로 재계약에 빨간 불이 켜졌다.

29일 기준, KIA는 63승 73패 4무 (승률 0.463)로 리그 8위. 가을야구는 이미 좌절됐고 남은 일정은 젊은 선수 점검과 내년 전력 구상을 위한 시험대가 됐다.

그중 외국인 선수 구성은 핵심 과제다. 올 시즌 KIA는 투수 2명(네일·울러)과 야수 1명(위즈덤)으로 용병을 꾸렸다. 이들의 성적표는 빛과 그늘이 확연히 달랐다.

지난해 팀 통산 12번째 우승의 주역인 네일은 올해도 확실한 1선발로 군림했다. 27경기에 등판해 8승 4패, WAR 6.59, ERA 2.25, WHIP 1.07을 기록했다. 피안타율 0.225, 피OPS 0.580, K/9 8.33, BB/9 2.25 등 세부 지표 역시 리그 정상급이다. 타선의 지원만 받쳤다면 두 자릿수 승수도 무난했을 것이라는 평가다.

시즌 흐름도 안정적이다. 3-4월 ERA 1점대로 출발했지만 5월 4점대로 치솟으며 잠시 흔들렸다. 그러나 6월부터 안정세를 회복하며 19차례 QS(퀄리티스타트)를 남겼다. 9월

팔꿈치 부상으로 시즌을 일찍 접었지만 ‘에이스’라는 평가는 변함이 없다.

리그 전체와 비교해도 빛난다. 한화 폰세(WAR 8.18·ERA 1.85), 삼성 후라도(WAR 7.06·ERA 2.70)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외국인 선발 상위 5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초기 마감이 없었다면 WAR은 더 높았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구단 입장에서 내년에도 네일이 꼭 필요하다. 다만 메이저리그 구단의 관심이 알려지면서 잔류 여부가 전력 구상의 첫 변수로 떠올랐다.

울러는 25경기에서 11승 6패, ERA 3.44, WHIP 1.14를 기록했다. 피안타율 0.221, 탈삼진 능력도 리그 5위로 준수하다. KIA의 유일한 10승 투수라는 점이 가장 빛난다. 반면, WAR(3.79)은 리그 중위권에 머물러, 이닝 소화와 꾸준함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시즌 흐름은 기록 속에서도 분전했다. 3-6월 ERA 2-3점대를 유지하며 초반 선발진을 지탱했다. 7월엔 어깨 염증으로 이탈했고 8월엔 6.26으로 부진했다. 그러나 9월 ERA 2.42, WHIP 0.85로 빠르게 반등하며 시즌을 마쳤다.

계약 총액 100만 달러를 고려하면 ‘가성비 최고’라는 평가가 나올 법하다. 울러는 잔류 의사를 밝힌 상태며, 구단의 전력 구상이 최종 재계약을 좌우할 전망이다.

위즈덤은 초반이 극명히 갈린 선수다. 116경기에서 타율 0.232, 출루율 0.316, 장타율 0.522, OPS



네일

0.842, WAR 3.05를 기록했다. 홈런 33개로 리그 3위에 오르며 장타력은 충분히 증명했다.

문제는 ‘영양가’다.

홈런 대부분이 솔로포다. 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터져 승리에 연결된 타점은 제한적이었다. 득점권 타율도 0.202로 외국인 타자 중 최하위다. 찬스 때마다 번번히 득점 기회를 날린 점은 뼈아프다.

월별 성적 역시 하락 곡선이 뚜렷했다. 3-4월 OPS 1.043으로 폭발했지만 5월 중순 허리 부상으로 이탈했다. 이후 6월 0.901, 7월 0.893, 8월 0.778, 9월 0.517로 급격히 떨어졌다. 시즌 막판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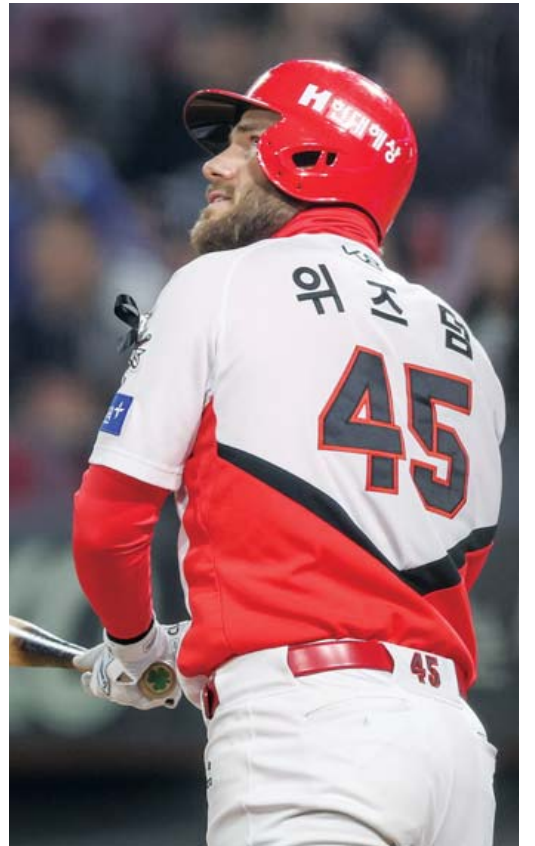
울러

갈수록 존재감이 희미해진 셈이다.

리그 용병들과 비교해도 차이는 분명하다. 삼성 디아즈(49홈런·OPS 1.016), LG 오스틴(31홈런·OPS 0.997), NC 데이비스(35홈런·OPS 0.956)에 비해 OPS와 WPA(승리 확률 기여도) 모두 크게 낮았다. 팀 승리에 미친 직접 기여가 제한적이었다는 방증이다. 재계약 가능성이 가장 낮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종합하면 네일은 변함없는 에이스, 울러는 가성비가 돋보인 선발, 위즈덤은 실력의 무게가 더 크다.

이처럼 명암이 엇갈린 외국인 3인방의 성적표



위즈덤

〈KIA 타이거즈 제공〉

는 2026시즌을 준비하는 출발점이자,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참고사다.

가을야구가 좌절된 KIA는 이미 내년 전력 구상에 착수했다. 네일은 메이저리그 진출 여부가, 울러는 구단의 전력 재편 구상이 재계약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위즈덤은 잔류가 낙관적이지 않지만, 3명 모두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잔류냐, 교체냐 냉정한 판단과 전략적 결정이 2026시즌 반등의 전제다. KIA가 이번 겨울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내년의 성패를 가를 중대한 변수다.

/주홍철기자



1일부터 열리는 ‘현대자동차 정몽구배 한국양궁대회 2025’에 출전하는 공사들이 30일 광주국제양궁장에서 연습 경기를 치르고 있다.

/김애리·조영권 인턴기자

세계선수권 이어 ‘정몽구배 양궁대회’ 빛고을 열전

1일 예선 광주국제양궁장·2-3일 본선 5·18 시민광장...슈팅 로봇 첫선

국내 양궁 최강자를 가리는 ‘현대자동차 정몽구배 한국양궁대회 2025’가 1일부터 3일까지 2025 광주세계양궁선수권대회 열기를 이어 광주에서 열린다.

예선 경기는 1일 광주국제양궁장에서 진행되며 64강, 32강을 거쳐 본선 진출자를 가린다. 이어 2-3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5·18 특설 무대에서 16강부터 결승까지의 치열한 본선 경기가 펼쳐진다.

이번 대회에는 세계선수권대회에서 활약한 남녀 리커브·컴파운드 국가대표를 비롯해 현상비준 등 241명(리커브 153명·컴파운드 88명)

이 참가해 남녀 개인전에서 기량을 겨룬다.

대회에 출전하는 광주·전남 공사는 리커브 남자일반부 이승운(남구청), 리커브 여자일반부 안산·최미선(이상 광주은행텐텐양궁단), 김수린·이가영(이상 광주시청), 남수현·유시현·이은경(이상 순천시청)을 비롯해 리커브 남자대학부 채진서(조선대), 리커브 여자대학부 오예진·남가형(이상 광주여대), 김서하·탁해운·서보은(이상 순천대), 리커브 남자고등부 심유한·박주혁(이상 광주제고), 리커브 여자고등부 전다현·남지현(이상 광주제고), 조한이·김시우(이상 순천여고), 김하은·박효빈

(이상 전남제고) 등이 출전한다.

컴파운드 부문에서는 통합남자부 신정우·김민준(이상 광주제고)과 통합여자부 허경민(전남제고)이 메달에 도전한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현대자동차그룹이 개발한 ‘양궁 슈팅 로봇’이 처음으로 팬들 앞에 공개된다.

각종 센서를 통해 바람 방향과 세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mm 단위로 발사각을 정밀하게 조정해 높은 명중률을 자랑하는 양궁 슈팅 로봇은 그동안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 파트너로 활약해왔다. 이번 대회에서 국가대표 선수들은 팬들 앞에서 양궁 슈팅 로봇과 일대일 매치를 펼칠 예정이다.

/박희중기자

광주시테니스협회·kt스카이라이프

스포츠중계 시범구축 MOU

광주시테니스협회와 kt스카이라이프가 테니스와 미디어의 새로운 결합을 위해 손을 잡았다.

(사진)

광주시테니스협회는 30일 광주진원국제테니스장 내 협회 사무실에서 kt스카이라이프와 ‘AI(인공지능) 스포츠 중계 시범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광주테니스협회가 운영하는 경기 및 행사에 AI테니스 중계를 도입, 양 기관 간의 상호협력을 통해 테니스 스포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광주시 테니스 경기의 AI중계 보급 확산에 상호 협력하고, AI중계를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AI기술을 활용한 테니스 경기력 향상, 우수인재 육성에도 협력한다.

또 10월 개최되는 광주테니스협회 AI테니스 경기 중계에 대한 만족도를 종합 평가해 2026년부터 AI스포츠 중계 솔루션을 정식 도입 및 활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김광희 광주테니스협회장은 “kt스카이라이프



프와 전국 최초로 광주시에서 AI스포츠 중계를 시행하게 돼 자랑스럽고 책임감을 갖는다”며 “양 기관이 이번 협약을 계기로 상호 발전하고 테니스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중기자



30일 열린 전국체전 사전경기에서 광주선수단 첫 금을 신고한 정지윤, 강영미, 최은숙, 김수빈.

〈서구청 제공〉

서구청 펜싱 강영미 ‘금빛 피날레’

은퇴무대 전국체전서 정지윤·최은숙·김수빈과 광주선수단 첫 금 합작

서구청 펜싱팀 강영미가 은퇴 무대를 ‘금빛 피날레’로 장식했다.

강영미는 30일 부산 스포츠원파크 금정체육공원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106회 전국체전 사전경기 여자일반부 에페 단체전에 정지윤·최은숙·김수빈과 팀을 이뤄 값진 금메달을 합작했다.

경남대(경남), 호원대(전북)를 연파하고 준결승에 진출한 서구청은 강호 전남도청을 넘어 결승에 안착했다.

부산시청과의 결승에서 탄탄한 팀워크로 경기를 압도한 서구청은 30대35로 승리하며 광주 선수단에 첫 금메달을 안겼다.

김대연·이승현·김재원·김상진으로 팀을 꾸려 남자일반부 에페 단체전에 나선 서구청은

준결승에서 한체대에 패해 동메달에 그쳤다. 서구청 펜싱팀은 최은숙의 에페 개인전 은메달에 이어 이날 여자단체전 금메달, 남자단체전에서 동메달을 추가하는 선전을 펼쳤다.

강영미는 경기가 끝난 후 “마지막 경기에서의 우승이 올림피아만큼 큰 의미로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다 기쁘다”며 “그동안 응원해주신 부모님과 가족, 동료, 지도자 선생님들께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광주 펜싱선수단의 연이은 승진보를 기다리며 시민들과 함께 뜨겁게 응원했다”며 “특히 강영미 선수의 은퇴 경기에서 기다리던 광주선수단의 첫 번째 금메달이 나와 더욱 큰 의미가 있고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박희중기자

KOVO, V리그 새 타이틀 스폰서로 진에어와 ‘1+1년’ 계약

한국배구연맹(KOVO)이 V리그의 새 파트너로 국내 저비용항공사(LCC)인 진에어와 손을 잡았다.

배구연맹은 30일 진에어와 V리그 타이틀 스폰서 협약을 체결했다.

계약 기간은 ‘1+1’로 2025-2026시즌부터 2026-2027시즌까지 최대 두 시즌 동행하게 됐다.

프로배구 V리그는 겨울 스포츠를 대표하는 종목으로 성장해 누적 관중 60만명을 바라보고 있다.

연맹은 새 타이틀 스폰서인 진에어에는 컵대회와 분리해 V리그의 대회 명칭 및 엠블럼 사용권, 프로배구 10개 연고지 경기장 내 광고권과 광고마케팅 권리를 주게 된다.

/연합뉴스